

1조원 기업구조혁신펀드, 자펀드 모집 개시

- 중소기업, 회생 및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투자 적극 유도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가 오늘 5월 2일(화) 자펀드 운용사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금년중 1조원 규모의 자펀드 조성 절차를 개시한다. 지난 4월 출자협약*에 따라 5,000억원 규모로 모펀드 조성을 약정한 이후 자펀드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 모펀드 총 5,000억원(캠코 1,560억원, 산은 1,495억원, 수은 1,110억원, 기은 835억원)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유치하고, 이 재원으로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펀드이다. 그간 '18년부터 세 차례(1~3호)에 걸쳐 총 4.9조원 규모로 조성되어 현재까지 100개 기업에 약 3.8조원을 투자했으며, 구조조정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민간의 구조조정 운용사·투자자들을 육성하고 있다.

이번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는 금리·물가 등 경기하방압력에 대응하여 기업들의 재기를 효과적으로 돕고 시장중심 구조조정을 지속해나가기 위해 마련되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23년 1조원 규모로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를 조성하고 '23~'27년 5년간 4조원 규모로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조성되는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는 ①운용주체, ②재원배분, ③운용방향 측면에서의 변화를 통해 기업정상화 효과를 강화한다.

①(운용주체)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모펀드 운용 역할을 맡게 된다. 캠코는 기업구조혁신펀드의 투자와 자산매각 후 재임대(Sale&LeaseBack), 회생·워크아웃기업 자금 지원 등 자체적인 기업지원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피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입체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②(펀드 자원배분) 정책목적의 투자 강화와 집행속도 제고를 위해 프로젝트펀드 자원 비중을 확대한다. 최근의 경기 하방 리스크를 고려하여 구조조정 기업의 자금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투자대상에 전액 투자집행이 가능한 프로젝트펀드를 늘리는 것이다. 이 중 일부는 자동차부품·조선기자재 등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중요한 제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유도한다.

* (블라인드펀드) 조성 후 운용사가 5~7년의 투자기간에 걸쳐 여러 기업에 분산투자
(프로젝트펀드) 투자대상이 발굴되면 해당기업에 대한 단건 투자로 조성된 후 즉시 소진

또한, '21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반영하여 블라인드펀드 중 종전 PEF 및 PDF를 통합하여 일반리그로 운영하되, 일반리그는 펀드 규모에 따라 소형·중형으로 다시 구분하여 투자규모에 따른 적합한 운용을 도모한다.

*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규제 일원화(PEF에도 대출투자 허용 등)

** 블라인드펀드 모펀드 자원 : 2,800억원(중형 1,100억원, 소형(2개) 1,000억원, 루키(2개) 700억원)
프로젝트펀드 모펀드 자원 : 2,200억원

③(운영방향) 중소기업 및 사후적 구조조정기업* 투자 유도를 강화한다. 상대적으로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사후적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 투자할 경우 지급되는 보수를 강화한다. 또한 블라인드펀드를 투자규모에 따라 중형·소형으로 구분하고, 규모가 작은 소형펀드의 경우 중소기업 위주로 투자되도록 유도한다.

* 사후적 구조조정기업 : 회생, 워크아웃, 자율협약에 따른 관리절차 개시 기업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늘(5.2일)부터 자펀드 모집 계획을 공고하고, 5.23일부터 블라인드펀드 제안서를 접수받아 6월말 운용사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프로젝트펀드 제안서는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블라인드펀드 자펀드 운용사 선정 이후에는 각 운용사 중심으로 민간자금 매칭 과정을 거쳐 금년 중 투자를 개시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에 신규자금 지원을 통하여 재기 또는 구조혁신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구조조정 투자시장을 지속적으로 성숙시켜 나가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구조조정의 패러다임을 종전의 채권단 중심의 채권 회수 극대화에서, 기업정상화를 통해 이익을 공유하는 시장 중심 구조조정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책임자	과 장	정종식 (02-2100-2920)
		담당자	사무관	김효빈 (02-2100-2931)
<공동>	한국자산관리공사 펀드운용부	책임자	부 장	조기환 (02-3420-5123)
		담당자	팀 장	정재욱 (02-3420-5111)

참고 1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 구조 및 재원 배분

□ (투자구조) 모펀드가 자펀드에 출자하는 Fund of Funds 구조



□ (재원배분) 모펀드 재원 5,000억원을 블라인드펀드 2,800억원(56.0%), 프로젝트펀드 2,200억원(44.0%)으로 배분

(단위 : 억원)

구분			모펀드 출자액(A)	민간출자 (B)	조성목표 (C=A+B)	모펀드 출자비율(A/C)
프로젝트	일반		2,200	2,800	5,000	44% (펀드별 40~60%)
	프로젝트 합계		2,200	2,800	5,000	44%
블라인드	PEF·PDF 통합 (일반)	중형	1,100	1,100	2,200	50%
		소형	500	500	1,000	50%
			500	500	1,000	
	소계		2,100	2,100	4,200	50%
	PEF(루키)		350	233	583	60%
			350	233	583	
	소계		700	466	1,166	60%
블라인드 합계			2,800	2,566	5,366	52%
총계			5,000	5,366	10,366	48%

참고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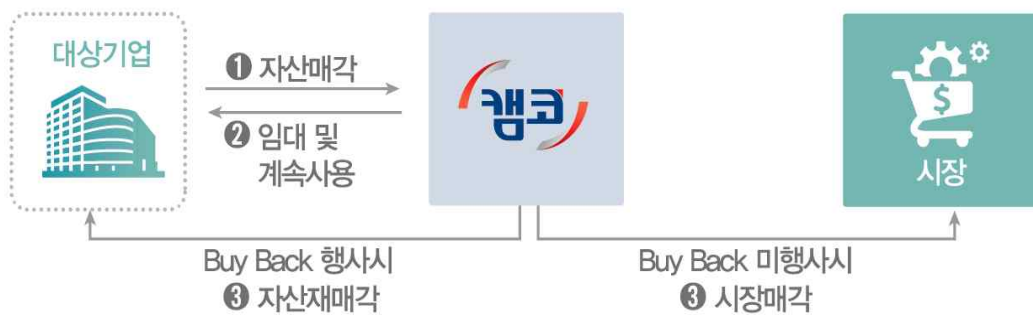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회차별 특징 비교

구 분	1호('18년~)	2호('20년~)	3호('21년~)	4호('23년~)
운용주체	한국성장금융	좌동	좌동	캠코
모펀드 총액	5,415억원	5,015억원	4,510억원	5,000억원
블라인드펀드 출자액(비중)	4,000억원 (약 73.9%)	3,009억원 (60.0%)	3,000억원 (약 66.5%)	2,800억원 (56.0%)
프로젝트펀드 출자액(비중)	1,415억원 (약 26.1%)	2,006억원 (40.0%)	약 1,510억원 (33.5%)	2,200억원 (44.0%)
투자대상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위주 (대기업도 포함)	좌동	좌동

□ 자산 매입 후 임대(S&LB)

-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의 자산을 매입하여 기업에 재임대함으로써 지속 영업활동 유지 지원 및 경영정상화 후 기업이 매각 자산을 재매입할 수 있는 기회(우선매수권, Buy Back) 부여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구조도】



□ 회생·워크아웃 기업 자금대여 프로그램(DIP 금융)

- 회생·워크아웃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대여 및 민간 전문가 컨설팅, 제1금융권 거래 재개를 위한 지급보증 등 종합 지원

【단계별 회생·워크아웃 기업 지원 프로그램 구조도】

	Stage1 기업 유동성 위기 단계	Stage2 기업 체질 개선 단계	Stage3 정상화 진입 단계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기업(종결기업 포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및 같은 법에 따른 워크아웃기업(종결기업 포함) 		
회생·워크아웃 기업 지원 프로그램	자금대여 프로그램 운전·시설 자금(기업당 최대 20억원) 및 회생담보권 상환을 위한 대환자금을 대여하는 프로그램	민간전문가 컨설팅 업종, 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민간 전문가 컨설팅 지원	지급보증 제1금융권 거래 재개를 위한 정상화 진입 단계 기업 대상 지급보증서 발급
기대효과	일시적 유동성 위기 극복 및 단기 영업현금흐름 회복	부실화 패턴 탈피 중장기 경쟁력 회복	정상 금융거래 재개